고려 만두 · 불교윤리…불교계 가을학술대회 '풍성'

대학 · 학회 · 연구소 등 학술대회 잇달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학계가 가을을 맞아 불교 음식부터 윤리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준비 · 개최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은 10월 13일 오후 1시 교내 5층 강당에서 제5회 음식문화학 학술대회를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그동안 그 실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고려시대 만두 식문화의 전체상을 고찰하는 연구논문 발표와 재현된 고려 만두를 전시 · 시식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1부 학술발표에서는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가 '고려시대 만두문화의 두 흐름: 불교사찰 채식만두와 왕실 · 일반사회의 육식만두' 를, 김수현 박사(고려대 중국학연구소)가 '이야기 속 두부와 국수: 〈유림외사〉에 그려지는 18세기 중국의 음식문화와 계층의 문제' 를, 김순이 박사(동국대 미술사학과)가 '한국불교 선원청규와 수륙재의문에 보이는 국수와 만두' 를 각각 발표한다.

2부 행사에서는 고려 채식 · 육식 만두 전시와 시식이 이뤄진다. 재현 · 전시되는 불교 채식만두로는 △칠보산함(酸餡) △무피산도(酸餺飥) △채식혼돈(餛飩) △일반산함(酸餡) △콩산함(酸餡) △징사탕산도(酸餺飥) 등이 있다. 왕실과 민간 육식만두로는 △고려왕실 쌍하(雙下) △쌍화점의 쌍화(雙花) △원천석의 돼지고기만두(豚饅頭) △최이의 육식혼돈(餛飩) 등이 소개된다.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그동안 한국 만두문화에 대한 인식은 고려후기 가요인 '쌍화점' 에 등장하는 '쌍화(雙花)' 를 한국 만두의 기원으로 삼는 오류 속에서 제대로 된 학술연구가 부재한 채 기존 주장이 재생산돼 왔다" 면서 "하지만 고려와 송나라 등의 불교 문헌과 문집류, 사서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고려가 두 가지 뚜렷하게 대비되는 불교 채식만두와 왕실과 일반사회의 육식만두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고찰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학술대회를 통해 '쌍하(雙下)-혼돈(餛飩)-산도(酸餺飥)-쌍화(雙花)-만두(饅頭)' 라는 고려시대 시대별 만두명칭을 바탕으로 고려 불교사찰의 채식만두의 전통과 왕실과 일반사회의 육식 만두문화, 그 전체상을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에서 개최하는 제5회 음식문화학 학술대회에서 재현 · 시식되는 고려 사찰 · 왕실 만두들.

동방대학원大 음식학 학술대회
고려 사찰 · 왕실 만두 재현해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선
사회 문제들 불교윤리로 논의
경허선사 사상 조명 세미나도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탈종교' 이다. 하지만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은 종교윤리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불교윤리로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회장 백도수)는 11월 4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기조강연 '불교윤리란 무엇인가-최근 연구동향 소개를 중심으로' 로 시작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양성평등, 생태 등 현대사회의 문제와 불교윤리의 접점을 모색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장성우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의 기업경영윤리' 를,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연구원은 '양성평등 사회와 불교윤리' 를 발표한다.

이어 이은영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인간적인 의료를 위한 불교적 모색' 을, 동국대 객원교수 공일 스님은 '동물의 생태에 대한 불교의 생명윤리' 을,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수행체험 복제 시도의 불교윤리적 문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를 중심으로' 를 각각 발표한다.

발표논문 논평자로는 김한상(동국대), 김제란(고려대), 양영순(한국외대), 이명호(경희대), 김성옥(동국대) 등이 참여한다.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은 "우리는 무종교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에 온통 관심을 기울일 뿐,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불교윤리적 관점에서 경영 · 젠더 · 생명 등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펼치고자 한다. 불자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10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경허, 받을 것도 전할 것도 없는 외로운 시대의 선사'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근대한국불교컨퍼런스 시리즈의 일환으로 경허 선사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논문으로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인문학센터 연구교수 문광 스님이 '경허 선사의 선시에 나타난 성(惺)과 성(醒)의 이중주-20세기 한국불교의 일착자(一着子), 그 불이(不二)의 여정' 을,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완 스님이 '〈경허집〉으로 보는 한국불교의 수행문화' 를,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허 선사의 간화선에 대한 소고' 가 발표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을 좌장으로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 이진영 동국역경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염불사지 동 · 서 석탑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 29일 지정예고
통일신라석탑 전형, 양식
흐름 파악하는 중요 성보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을 비롯한 사묘(祠廟) · 재실(齋室) 등 10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한다" 고 9월 29일 밝혔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한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은 통일신라시기인 8세기 전반에 건립된 5.85m 높이의 석탑이다. (전)염불사지는 2003년과 2008년에 걸쳐 진행된 발굴조사를 거쳐, 8세기 초반에 창건돼 12세기에 폐사된 사찰로 추정된다.

동 · 서 삼층석탑은 상, 하 2층의 기단으로 구성돼 있고, 탑신(몸돌)과 옥개석(지붕돌)은 각각 1매의 석재로 이뤄져 있다. 두 탑 모두 상륜부는 대부분 사라지고 노반석(탑의 상륜부를 받치는 돌)만 남아 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전경.

동탑은 1963년에 불국사역 광장으로 이전됐던 것을 2009년 사지 정비와 함께 원위치에 이전 · 복원했다. 탑지 발굴조사 결과 서탑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기초부를 추가로 조성했음이 확인됐다. 기단의 받침기둥에 날개벽을 두어 면석을 끼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시도된 이후 신라로 계승되어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에서 확인되는 전통적 기법이다.

2층과 3층 탑신에는 사리장치를 봉안하기 위한 사리공(舍利孔,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홈)이 있으며, 노반석은 2009년 복원시에 새로 제작하여 설치했다.

서탑은 무너져 있었던 것을 2009년 사지 정비와 함께 원위치에 복원했다. 서탑은 전체적으로 동탑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돼 있으나, 옥개석의 귀마루에 장식과 풍경을 달기 위한 구멍이 없으며, 상륜부로 판단되는 부재 파편이 인근에서 출토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양식을 잘 구현하고 있다. 특히 석탑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탑의 기초부를 높인 점은 다른 석탑에서 볼 수 없는 특징" 이라며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은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전형과 양식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 라고 지정예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한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을 비롯한 10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백제는 불교를 어떻게 수용했을까

한성백제박물관 '연구총서 쟁점백제사 20' 발간

백제가 불교를 어떻게 수용하고 전파했는지를 살핀 연구총서가 발간됐다.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제20권 〈백제의 불교 수용과 전파〉를 발간했다" 고 9월 28일 밝혔다.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제20권 〈백제의 불교 수용과 전파〉는 지난 4월 열린 '쟁점백제사 학술회의' 에서 발표된 논문과 종합토론문을 정리 · 발간한 것으로, 백제불교 수용과 전파에 대해 불교 미술사, 사상사, 고고학의 측면에서 논의했다.

소현숙 원광대 교수는 '백제와 중국의 불교 교류' 에서 백제 한성 도읍 시기의 불교 수용에서부터 웅진과 사비 도읍 시기에 이뤄진 불교 교류의 쟁점 사항을 불상을 비롯한 미술사 자료를 적극 이용해 살폈다.

길기태 국가기록원 연구사는 '불교가 백제 사회에 끼친 영향' 에서 백제 사회에서 불교 사상이 끼친 영향을 토착 산신 신앙과의 관계를 다뤘다. 이병호 공주교대 교수는 '백제 불교 사원의 전개와 주변 국가의 교류' 를 통해 부여 정림사지와 익산 미륵사지 등 백제 불교 사찰의 편년과 석탑의 건립 연대에 대한 쟁점 사항은 물론, 일본 등에 전파된 불교 사원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살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이번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제20권 발간을 계기로 백제의 불교 수용과 전파에 대한 연구와 일반인의 관심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